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순근

새벽을 깨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새벽기도회 참석인원 급증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본당에서 실시
새벽기도회와 금요일집회의 신선한 변화가 새로운 갱신과 부흥 가능케

지난 한달 전부터 우리 교회는 조용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6월 6일 금요일집회때부터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사역하기 시작한 김성관 목사의 금요일집회 인도를 보면서 우리는 변화를 예감했다.

그후부터 교회는 외적으로 드러나게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내적인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성관 목사는 6월 6일 금요일집회 인도를 시작으로 주일예배의 2번 설교, 주일 저녁 찬양예배, 수요일, 2부예배, 새벽기도회 인도를 해오고 있다.

새로운 형식의 금요일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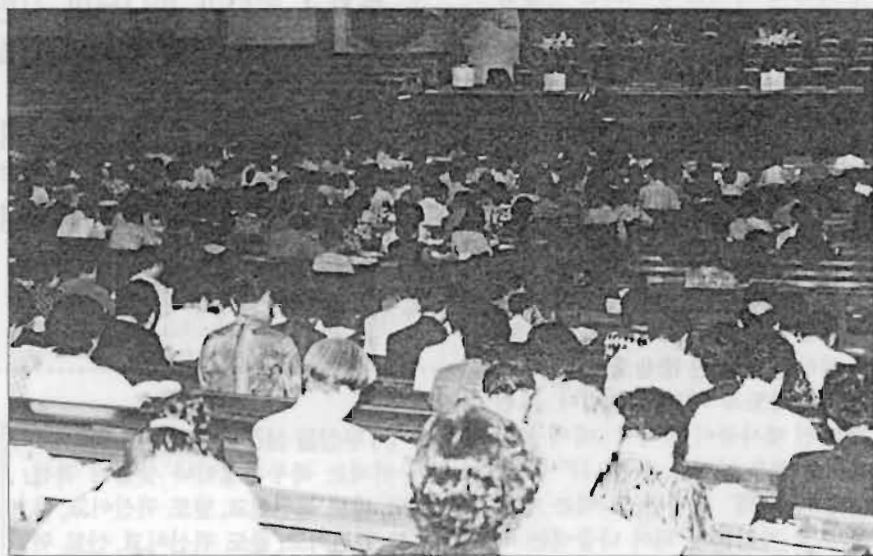
금요일집회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김성관 목사가 전체 시간을 인도해 나간다. 주로 찬양을 중심으로 인도하며 중간중간에 말씀과 기도로 진행해 나간다. 특이한 것은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도록 가사의 이해를 도와 주고, 특히 작곡자의 의도를 잘 헤아려 찬양을 하게 함으로 교인들이 늘 부르던 찬송을 전혀 다른 느낌으로 찬양하게 되면서 모든 예배와 집회에서 찬양의 의미가 부각되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찬양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요일집회 시간에 위원장들이 나와서 위원회를 소개하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일도 특이한 일이다. 이 일로 교회내의 주요한 일들을 맡아 행하는 각 위원회의 중요성과 그 하는 일들을 위원장을 통해 일반 성도들이 직접 듣게 됨으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동참이 가능하게 되었다. 금요일집회는 현재 평균 1,500여명이 모이고 있다. 평상시 금요일집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적은 없었다.

예배나 집회 중에는
휴대폰 및 호출기를
끄도록 합시다

예배 및 집회 시간에 휴대폰 및 호출기의 신호로 말미암아 예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령한 예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의 실수로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배 및 집회에 들어 오기 전에 휴대폰이나 호출기의 신호음이 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본당에서 모이는 새벽기도회의 모습(1997. 7. 10)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기도회에 성도들 몰려

새벽기도회도 오전 5시에 모여 시작하던 것을 20분 앞당겨 오전 4시 40분에 모여 한 곡의 찬송가를 선택하여 가사를 묵상하며 이해하고 김성관 목사의 찬양 인도에 따라 찬양을 부른 후 정각 5시에 사도신경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당회원이나 교역자가 대표기도를 하고 있다.

새벽기도회는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구구절절이 구속의 은총과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다. 이처럼 새벽기도회에서 찬양과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전달되면서 새벽기도회 참석 인원이 6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성인 600명 수용이 적정인 갈릴리홀이 좁아 지난 6월 25일 새벽부터 본당에서 모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없었던 일이다. 본당에서의 새벽기도회는 특별한 기간에만 있었던 일이다. 새벽기도회에는 거의 서울 시내 전지역에서 성도들이

이 참석하고 있다. 이전보다 20분 일찍 모이지만 이미 오전 4시 40분 전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참석하고 새벽기도회의 분위기도 여러 가지로 특이하다. 700-8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이지만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모이고 시작된다. 찬송도 김성관 목사의 인도에 따라 조용하고 나직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색이다.

조용한 변화가 출렁대는 교회로

교회는 이처럼 집회에서 말씀과 찬양이 살아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고 있다. 김성관 목사는 매 설교시간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랑, 일치, 용서를 뜨겁게 전하고 있다. 말씀 중심의 은혜로운 메시지는 온 교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였으며 피차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다.

역삼전철역과 자매결연

교회는 역삼역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서울지하철공사 역삼역과 충현교회와의 자매결연 예배를 드리고 복음전파와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부목사 두 분 청빙

교회는 부목사 두 분을 청빙하기로 했다. 이승수 목사(만 42세)와 정갑신 목사(만 34세)로 이승수 목사(사진 상)는 총신대학 및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구 남산여고 교목, 대구중앙교회 청년부지도, 왕십리교회 대학부 지도, 한국성서유니온 부산지부 대표간사, 부산주영교회 강도사 시무 등의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부산남부주영교회를 개척 시무해 왔다.

이 목사는 이미 지난 7월 3일자로 부임하여 김찬관 목사 후임으로 제3교구지도 목사로 일하고 있다.

정갑신 목사(사진 하)는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윤리교육과,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정 목사는 안양남부중앙교회 교육전도사, 제자들교회 교육전도사,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는 충현교회 초등2부 지도 교육전도사,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광천교회의 교육 목사로 대학부를 지도해 왔다.

또한 동아시아선교회(중국 전문 선교단체)의 간사, 총무를 역임하고 있다.

정 목사는 8월 15일부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된다.

구역예배 쉬기로

오는 7월 18일(금)부터 8월 말까지

교회는 오는 7월 18일(금)부터 8월 30일까지 구역예배를 쉬기로 했다. 이는 하절기를 맞아 학생들의 방학과 직장인의 휴가와 휴가기에 가정으로 돌아가며 구역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행한 조치이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모이는 금요일집회는 계속적으로 모이게 된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피할 수 없는 심판

(이사야 2:5-22)

오늘은 예수님이 제립하시는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고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1.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심판이 오기 전에 할 일

(1)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 신지자는 심판을 말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영혼이 떠나면 기도도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나거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심판을 말하면서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일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고생이 오고 망신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망신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2)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빛에 행하자'는 말씀은 진리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죄악을 따라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2.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

웃시야 왕은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어른스러워서 농업을 진흥시켰고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래서 웃시야 왕은 4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을 정복하고 아람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상당히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웃시야 왕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월권을 자행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경솔해지면 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반 해야 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도 자기 해보겠다고 월권하며 댁비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려 궁궐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갇혀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웃시야 왕 때에 유다가 무슨 죄값으로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까?

(1) 미신을 따른 죄입니다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는 말은 미신이 꼭 있다는 말입니다. 유다가 동방의 나라들을 정복한 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미신을 수입해서 섬겼습니다.

(2) 점장이 노릇을 한 죄입니다

'술객'은 점장이란 말입니다. 유다가 블레셋 술객같은 점장이 되었다니

기가 막힙니다. 웃시야 왕 때에 점장이 얼마나 많았는지 점장이 조합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이용하면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으로 섬겼으니 무서운 죄악입니다.

(3) 이방과 타협한 죄입니다

'이방인으로 ... 언약하였음이라'는 이방과 타협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다의 배와 같습니다. 배는 바다에서 필요하되 물 위에 두둥실 떠야 제구실을 하듯이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 위에 두둥실 떠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은 한 방울도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열빠진 뱃사공이 있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할 수 있나?' 좀 들어오게 해도 돼' 한다면 그 배는 점점 물 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나중에는 바다 밑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다가 세상이 범하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을 멸망시키는 데 선봉을 씁니다.

교회는 바다에 뜬 배와 같아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지면서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되듯이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4) 하나님을 돈과 바꾼 죄입니다

웃시야 왕 때에는 농사를 잘해서 양식이 풍족하고 군사력을 키워 여러 나라를 점령하여 은금 보화를 빼앗아 오고 또 조공을 받으므로 고관대작들의 집에는 은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은금이 가득한 것을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돈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5) 우상의 제물을 준비한 죄입니다

'말이 많은 것'을 죄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리지만 마귀를 섬기는 데는 말이나 돼지를 잡아 대가리를 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을 잡아 제사했습니다. 유다는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외국에서까지 말을 수입하였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6) 무기를 의지한 죄입니다

'병거가 무수하며'는 최신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많아 군사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시는 그 때에 회개를 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임하면 큰일입니다.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7)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이제는 복두칠성이나 셋별이 귀신이고, 해도 귀신이고, 달도 귀신이고, 나무도 귀신이고, 돌도 귀신이고, 산도 귀신이고, 강도 귀신이고 전부 귀신으로 섬기니 우상이 꼭 찻습니다.

(8) 사람을 믿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것을 저버리고 '우리는 웃시야 왕이 계시거든' 하며 웃시야 왕만 믿었습니다.

3. 하나님의 심판 때의 형편

(1)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것을 빠져 나갈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권세가 당당하고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은 없습니다.

(2)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피난처도 없습니다.

4. 심판을 받은 자

무서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너무나 두려워 '산아,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할 것입니다(계 6:16). 망신을 당합니다. 영육이 고생을 당합니다. 자기가 믿던 우상을 제 손으로 던져 버리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괴로울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이 괴로워지고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에 낙심하거나 원수 앞까지 가서 빌어먹는 비루한 인생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즐기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죄악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웃시야 왕은 즐거운 일이 생길 때 감사하기보다는 교만이 앞섰고, 순종하기보다는 거역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잘될 때에 교만하거나 법을 문란하게 만들면 차라리 잘되지 못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오는 것입니다. 웃시야 왕이 잘될 때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죄와 타협하다가 망한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잘될 때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파수꾼을 세워놓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셋째로, 사람을 중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웃시야 왕이 죽은 후의 역사가 기록되었는데, 웃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유다 나라가 바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던 사람이 죽으니까 오히려 나라가 바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정당하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넷째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후회가 막급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시는 그 때에 회개를 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임하면 큰일입니다.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매를 맞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매를 맞고 회개하는 사람은 매를 맞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기 전에 회개하고 복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를 맞고 회개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매를 맞기 전에 회개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卍

To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김성관 목사의 금주 설교

THE SERMON OF JOSHUA AND CALEB

(Numbers 14:1-10)

The Lord told Moses to send one leader from each of the twelve ancestral tribes to the land of Canaan (the Promised Land) in which He was going to give the Israelites. After forty days, they returned to give their report on the exploration to Moses, Aaron and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They described the land as exceedingly goo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hey showed some of the produce they had brought back: a huge cluster of grapes from a single branch that required two men to carry it along with some pomegranates and figs. Then they described the current inhabitants of the land as very big, strong and powerful. They also told of how large and fortified its cities were.

"That night all the people of the community raised their voices and wept aloud" (vs. 1). Unfortunately their crying was in vain. Their pride was hurt. They were small compared to the Canaanites' large size. They couldn't imagine how they were going to overpower these people in order to take possession of their land. So they cried in rebellion against God. God rescued them from Egypt, performed so many miracles, and cared for them constantly throughout their journey.

Crying is usually a very good sign of repentance. It's easy for us to sympathize with someone when we see him (or her) crying. Crying requires careful analysis - it can look good but in truth can be very bad. The situation in which the Israelites cried was very, very bad. They weren't sorry for anything they did and they weren't sad because of anything bad done to them; quite the contrary, they were sorry for themselves and saddened at the thought of their powerlessness.

During this crying outbreak, all the Israelites grumbled against Moses and Aaron saying, "If only we had died in Egypt! Or in this desert!" (vs. 2) Although their words were directed at Moses and Aaron, their complaint was purely against God. Here is where their true faith is expressed. Through all the hardships that could have been devastating; God had protected and provided for them all the way from Egypt to their present encampment at Kadesh. All His former actions of love went unaccounted. The only thing that concerned them was their present situation; which they perceived as hopeless.

They continued in their complaints and questioned Moses, "Why is the Lord bringing us to this land only to let us fall by sword? Our wives and children will be taken as plunder. Wouldn't it be better for us to go back to Egypt?" (vs. 3) Their questions are absurd in light of the ten plagues they witnessed to in Egypt. Although they act like they care for their families, it is only a cover for their total disrespect for God. Their questions totally go against God and everything He has showed them.

Then they began to talk amongst each other saying, "We should choose a leader and go back to Egypt" (vs. 4). Now, they try to be smarter than God. They are going to organize their own journey and choose their own leader. Moses, who was chosen by God and served God in their benefit, was not now the person whom they wanted. Of course, I'm sure they were quite happy with him when God used him to part the Red Sea. Now, the task of conquering large people in stone cities appeared much more difficult than spreading the waters for them to pass through.

Moses and Aaron fell facedown, probably in exasperation, in front of the whole Israelite assembly. It was Joshua and Caleb, two of the twelve original explorers, who stood-up and tore their clothes to address the people. Imagine for a moment, how Joshua and Caleb felt. They could clearly see the problem and were so adamant in their faith, that they tore their clothes. This



여호수아와 갈렙의 설교

(민수기 14:1-10)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하였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십일이 지나서, 그들은 정탐 후 돌아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훌륭한 땅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그 땅의 소산물들을 보여 주었는데, 그것들은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와 베이 돌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곳의 성들이 매우 크며 견고하다고 하였습니다.

"은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1절). 불행하게도 그들의 부르짖음은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상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왜소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그들의 행로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보살피 주셨던 하나님께 대하여 심히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는다는 것은 대개 회개의 표시가 됩니다. 누군가 울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울부짖음이라는 것은 세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었던 상황은 사실 매우 좋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했던 어떤 일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그들에게 일어난 어떤 나쁜 일 때문에 슬퍼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그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생각 때문에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곡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2절)이라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였지만 그들의 원망은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 신앙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그들을 보호하시고 애굽에서부터 당시에 머물고 있었던 가데스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안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의 역사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그들이 절망적이라고 여겼던 당시의 상황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3절). 그들이 애굽에서 목도한 열 번의 재앙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그들의 질문은 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처자들을 생각하여 이런 말을 한다고 하였지만 실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 주신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4절)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욱 현명해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갈 계획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왔던 모세는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흥해를 갈랐을 때에 그들은 모세에 대하여 매우 좋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높고 강한 돌 벽에 쌓인 성에 살고 있는 거대한 사람들을 점령하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바닷물을 갈라서 그들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물로 그들의 대적자들을 멸망시킨 것보다 그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듯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격분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열두 정탐꾼 중 두 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어나서 그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들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았고 확

expression of their tearing clothes is so important. It clearly illustrates their deep felt faith in God. They knew the consequences of Israel's rebellion, their turning away from God, would result in death. And they also knew the danger of standing up in front of a community against God.

Yet, Joshua and Caleb stood up and told the people again how exceedingly good the land was that they explored. They were not afraid of the people because of their awareness of who God is. They spoke the truth boldly. They said, "If the Lord is pleased with us, he will lead us into that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will give it to us" (vs. 8). They understood God's power and His will.

They also understood that the Israelites could see earthly things very well but not God's power. They reassured them by saying,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And do not be afraid of the people of the land, because we will swallow them up. Their protection is gone, but the Lord is with us. Do not be afraid of them" (vs. 9). Joshua and Caleb knew God's power. They told the Israelites that their fear of the people and environment was nothing compared to Almighty God. They asked the Israelites to stop and find their faith. They pleaded with them not to rebel but to trust in God and have His protection. They were ready to move into the land now; their confidence in God was high.

"But the whole assembly talked about stoning them. Then the glory of the Lord appeared at the Tent of Meeting to all the Israelites" (vs. 10). The Israelites past history of God's wonderful workings wasn't enough and neither was Joshua's and Caleb's sermon to them. Moses prayed desperately to spare God's wrath on His people. The Lord heard Moses and replied, "I have forgiven them, as you asked. Nevertheless, as surely as I live and as surely as the glory of the Lord fills the whole earth, not one of the men who saw my glory and the miraculous signs I performed in Egypt and in the desert but who disobeyed me and tested me ten times - not one of them will ever see the land I promised on oath to their forefathers. No one who has treated me with contempt will ever see it" (vss. 20-23).

The Lord told Moses, "Not one of you will enter the land I swore with uplifted hand to make your home, except Caleb son of Jephunneh and Joshua son of Nun" (vs. 30). Everyone who was counted in the census as being twenty years old or more and who grumbled against the Lord was to die in the desert of Kadesh. Their children would enjoy the land that they had rejected but only after forty years of shepherding in the desert and suffering for their parents' unfaithfulness. Forty years of suffering in the desert (one year for each of the forty days of exploration) was required to atone for their sins.

"When Moses reported this to all the Israelites, they mourned bitterly" (vs. 39). Now they really had something to cry about. For among all the Israelites who left Egypt to enter the Promised Land, only Joshua and Caleb were permitted to enter. Their faith allowed them to receive God's wonderful blessing. Joshua and Caleb were aware of God's power. They understood that if God was with them - no one could stand-up against them. This basic principle was easy for them to grasp but impossible for their fellow country men.

More than six hundred thousand men perished in the desert because of their weak faith. Only two were spared because of their simple faith. This is by far one of the most striking biblical stories of the necessity of faith in God. It makes you open your eyes and see God's great glory. Faith is not something you can merely talk about or something you can see. Faith is a trust in God Almighty that is reflected in everything you say and do.

So many Christians today profess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They know of Him and about Him but so few know Him in faith. Their precious knowledge is lost in their sinful ways. They have not faith - they have not the faith in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r. This simple faith transforms life from sin to holiness. It's the difference between night and day - life and death. It is the complete trust in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as omnipotent, omnipresent and omniscient.

Joshua and Caleb preached the true Word of God to their people. They stood up in the face of danger and magnanimously proclaimed the truth. Their faith was evidenced in their actions. Their instructions to the Israelites that God will make their enemy powerless; rebellion against God is death; and God's blessings will come upon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are words we need to remember and practice in our daily Christian living. Their sermon is today's sermon and it is my hope that more people will listen today than they did before. 

고한 믿음 가운데서 그들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깊은 신앙을 나타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의 결과가 곧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백성들 앞에 맞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감히 맞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탐했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가를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알았기에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8절) 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속한 것들은 아주 잘 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안돈시키며,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9절) 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사람들이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울음을 멈추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10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셨던 놀라운 이적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설교는 그들에게는 충분치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0-23절) 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0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던 이십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가데스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땅에 그들의 자녀들은 들어가게 되었으나 부모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사십년 동안 방황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속량하기 위하여 그들이 정탐한 사십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계산하여 그들은 사십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하여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39절). 이제 그들은 정말로 울어야 할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아무도 그들을 대적하여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붙잡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수월한 것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한 다른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육십만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단지 두 사람만이 단순한 믿음 때문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나, 그분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들의 귀한 지식은 그들의 죄악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믿음은 죄에서 기쁨으로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차이점은 마치 낮이 밤과 다르고 생명이 죽음과 다른 것 같은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제하신 분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에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고결하게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행동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원수들을 무력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곧 죽음이며, 하나님의 복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그들의 교훈은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설교는 바로 오늘 저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저는 이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이국병
(목사, 고등부 지도)

오늘 새벽기도회는 성도들이 본당 1층을 거의 메운 것같이 많아 보이며 너무 기뻐했다. 장년3부의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기에 더욱 많았다. 언젠가 본당1, 2층이 꽉 차서 찬송과 기도소리가 하늘보좌를 흔드는 꿈을 가져 본다. 만나홀에서 먹는 아침식사는 언제나 맛있다. 어제는 쇠고기국밥, 오늘은 미역국밥. 미역국에 밥을 말았는지 밥에 미역국을 부었는지 식당에서 밥짓는 여종들의 숙달된 솜씨에 성령님의 열심과 사랑이 담겼으니 그 맛은 강남 식당가의 일일지다.

오늘은 식당부엌에 김성관 목사님이 보이지 않았다. 봉사하시던 여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아마 먼저 하신 것 같다. 열심히 꼭두 새벽에 봉사하고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는 저 여종들의 기쁨과 평강은 아무도 쉽게 해아리지는 못할 것이다. 부럽기가 그지없다.

교역자실에 올라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로 심방한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두 달 전에 집을 나갔던 온 여고 1년의 새롭이가 또다시 가출하여 애틀 태운다. 새롭이의 뽀뽀호출거 움성사서함에도 녹음을 한다. "새롭아, 잠은 잘 잤나? 아침식사도 해야지. 이제 많이 놀았으니 집으로 들어와야지. 다 큰 애가 암마 애 좀 그만 먹이고." 약간 화가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새롭아, 내가 기도할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새롭이를 지켜 주시고 마음 깊은 곳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꼭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세요요."

내일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할머니는 위독하시고 부모님은 겨우 생명을 건진 후 입원해 있는 병원에 다시 가보아야겠다. 어른들의 슬픈 소식을 듣고 하영이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대신 애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요즘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한다. 학교성적, 아버지의 사업실패, 부모의 별거, 알콜중독, 학원폭력, 성적 타락 등등으로 우리 학생들의 마음들은 점점 황폐해진다. 부유한 가정에는 쾌락만능과 이기주의가 인간성을 파괴하고 교회 다니는 가정에도 주일성수 못하고 학교성적을 위해 학원에 보내는 가정이 부지기수이다. 공부우상에 사로잡혀 성경교육은 뒤로 하고 이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풍조가 교회의 교육을 흔들고 있다. 얼마 전 자기를 낳고 기른 부모였던 한약상 부부를 칼로 난자하고 불에 태워서 살해한 젊은이의 엄격한 친숙 살해 사건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유학갔다 온 아들에게 "너를 호적에서 빼버리겠다"는 심한 말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라는 소리가 이들

의 마음속에 심한 절망감과 패배감을 일으켜서 삶을 자포자기했던 엉뚱하고도 엄청난 비극이 언제라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청소년들의 가정 환경들이다.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처럼 주께서 이들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학생들의 배운을 빗기시고 기쁨으로 떠 뵈우시기를(시 30:11) 기도할 뿐이다. 벌써부터 우리 학생들은 애기하기를 "우리 부모님이 못가게 해요. 보충수업 때문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이번 수련회에 꼭 가서 내 마음의 고통을 치료받고 싶어요." 학교 교육과 대학 입시 앞에 찢찢매는 부모와 선생님들을 보고야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시겠는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는 공부 우상과 이 세상 성공은 교회에서조차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

수요2부예배 후에 수련회를 위한 동역자인 2학년 선생님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오니 밤 11시, 이 책 저 책 뒤적이다가 이제 새벽 2시다. 오늘 새벽기도

회 참석을 위해 잠을 자야겠다. 맛있는 김성관 목사님의 신나는 찬양과 골리앗을 무찌르는 소년 다윗같은 용맹한 모습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며 은혜 받는 것이 날로 더욱 귀하다. 또 하나 신나는 것은 몇몇 장로님들이 나의 인상이 새로 오신 김성관 목사님을 많이 닮았다고 한다. 매우 신나고 기쁜 일이다. 주 안에서 자유스러운 나의 스타일이 보수주의 충현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은근히 눈총받아 왔는데 언젠가는 나의 복음(롬 16:25)과 기쁨과 자유함을 이해하리라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다. 전통과 유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에 더욱 충실해야겠다(갈 2:11-14). 목사님이 오신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나의 외모뿐 아니라 중심과 신앙까지도 목사님을 닮아가야겠다.

하나님! 이번 여름수련회에 충현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천국 일꾼 양성을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강사로 보내 주세요요. 꼬-옥 요!

고등부 여름수련회
8월 7-9일 양수리수양관

주간충현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간충현에서는 보다 더 감동적이고 친근한 신문으로서 한 걸음 더 모든 독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생생하고 주옥같은 원고를 모집합니다.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기에는 아까운 산 체험과 소중한 이야기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원고종류 / 간증, 수필, 시(동시), 제언, 일기, 서간문, 서평, 이런 일은 고침시다, 각 부서 소식, 판평, 소설(동화), 콩트, 기타

2. 원고마감 / 주간충현은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시사성이 있는 원고나 뉴스 종류는 게재될 전 주일 찬양예배 전까지이며, 특별한 경우는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십시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원한 수박, 빙수, 얼음과자 ... 그러나 지금부터 써가는 내용은 우리들의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6월 16일(월) 우리 농어촌전도팀인 김광남 장로님 외 19명의 대원들은 물이 맑기로 유명한 강원도 동해시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함께 하실까' 하는 기대에 차고 들뜬 마음으로 동해시 동성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첫번째 이야기

농민기로 바쁜 서가라 사람들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논과 밭으로 나섰습니다. 어느 밭으로 갔더니 할머니들에게 밭을 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회들은 동성교회에서 왔는데 지회들이 좀 도와드릴게요" 하며 밭의 끝을 베어 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무척 따가운 날씨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을게요. 나는 철저하게 불교를 믿으니까 헛수고 하지 말아" 하며 처음부터 못을 베어 놓는 것이었다. 우리는 밭일을 계속 도와 주며 수건으로 땀도 닦아드리고, 식탁을 앞에 놓아드리며, 예수님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들려주었더니,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같은 사람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좋아할

☼ 농어촌 전도 활동을 다녀와서 ☼

동그라미 사랑

박윤석
(권사, 8교구)

까?"

"그럼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집회 때 그 할머니도 앞자리에 참석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몇번을 시도했지만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어느 원고한 거정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는 절대로 죽어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60대의 남자가 우리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아저씨, 무뎠잖아 마시고, 다른 것보다도 지나온 얘거나 들려주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파서 피난을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화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사님들의 좋지 못한 편을 보고는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와는 담을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대화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3시간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저씨,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힘들어 하시는 아저씨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생활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알리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빠른 세월에 교회에 다시 출석하게 되기를 우리들은 지금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외 전도하면서 있었던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그란 사랑.

이러저러 굴러도 굴러가는 동그라미. 이러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 줄 때, 전도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전도팀은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6명의 결신자를 났습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장로님의 건강에 대한 강의, 간증 집회, 새신자와의 다과회, 마지막날 주일들과의 과일, 떡잔치 등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끝으로 보아져 않게 기도로 믿어 주신 분들, 그리고 이번에 참가했던 땀 흘린 우리 20명의 전도대원들 ...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취재수첩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성경학교
16일 연합 개회예배 드림으로 시작
청년1부, 사랑부, 에바다부도 금주에 실시

요즘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및 찬양대 각 부서의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은 장년3부 수련회 모습).

16일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의 방학에 맞추어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16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연합으로 개회예배드린 후 17일까지 부서별로 성경학교를 실시하며 그밖에도 금주에는 청년1부, 사랑부, 에바다부에서 다음의 일정



으로 수련회를 실시한다.

부서	주제	장소	일시	강사
유년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자	유아부실	7. 16 - 7. 17	염현일
초등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교육관307호	7. 16 - 7. 17	한승일
소년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교육관407호	7. 16 - 7. 17	박노철
청년1부	일심으로 사시 한 뜻으로	양평 한화프라자	7. 16 - 7. 18	김동석, 김원호
사랑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교육관107호외	7. 16 - 7. 17	이준우
에바다부	예수님과 함께	충현기도원	7. 17 - 7. 19	이준우, 박인기

남녀전도회 행정 및 회계 지도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한달 동안 매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선교관 405호



에서 모든 남녀전도회 119개 지회를 대상으로 행정 및 회계지도 실시하고 있다. 각각 전도회 임원이 올해 동안 정리한 회계 장부나 회의록 등을 가지고 와 감사를 받는 것이었다.

▶ 지난 7월 6일 중등3부에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학습평가가 있었다. 범위는 전반기때 배운 분반 공부 내용으로 사무엘상, 하였다.

▶ 교정전도회에서는 오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춘천소년원(신촌중학교)에서 원생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부나 청년부 회원 중 교사로 봉사할 봉사자 40명을 모집한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은구 기자)

'새가족환영회' 있습니다

- 일 시 / 7월 13일 오후 2시 30분
- 장 소 / 갈릴리홀
- 참석대상 / 5월 4일~6월 29일에 등록한 성도 및 인도자, 교구장, 교역자, 지역장, 교구일꾼



제직사진첩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설립 마흔다섯 돌이 되는 1998년에 새로운 제직사진첩을 펴내려고 합니다. 제직께서는 단정한 차림으로 제 날짜에 찍으셔서 보다 알찬 사진첩을 만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 1997년 6월 22일 ~ 12월 31일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는 교구 / 1997년 7월 13일 : 4교구
1997년 7월 20일 : 5교구
- 찍을 사람 /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남녀 서리집사

은혜 가운데 홀트 가정들과 함께 한 시간들

김 정 순
(집사, 영어에배부)

미국에서부터 중헌교회를 방문한 홀트 가정들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무사히 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번째 이들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선교부와 영어에배부가 손잡고 힘을 합하여 또 각 교구에서 모두 협조하여 주셔서 한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교회 전체의 참여로 인해 얼마나 은혜로운 가운데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

지 모릅니다.

장마철인데도 화창한 날씨에 7월 5일(토) 오후, 약속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교회에 도착한 홀트 가정들은 먼 여정에도 중헌의 가족들이 자신들을 집에 손님으로 모시고 하루를 함께 한다는 사실에 약간의 긴장감과 흥분감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집에 오실까 하는 기대 속에서 두 가족이

처음 만나고,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반가워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방문이 두번째인 Cristopher 가족(4명)은 이번에도 작년에 묵었던 성도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고 이런 것이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



라운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7월 6일) 오전 9시 영어에배부에서 각자 자기 소개를 했고 'Are You Born of God?' 이란 제목의 이승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국적에 관계없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11시 본당에서 3부예배를 드렸는데, 주간중헌에 실린 영문으로 된 설교문을 보면서 김성관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너무나 아름다운 중헌 성전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그들 중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담은 비디오 필름을 구입해 미국에 있는 자기네 교회에 보여 주고 싶어했습니다. 우리는 중헌의 가족임이 갑자기 자랑스러워졌고 늘 보던 우리 성전이 그토록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구석구석 처음 방문한 사람처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서로 간담을 나누고 이색적인 만남과 전날 저녁 식사 후 강변을 거닌 사람, 고궁을 찾은 사람, 또 남산을 다녀온 이야기에 꽃을 피



웠고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을 보여 주면서 자랑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한글과 영문으로 된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부슬거리는 비를 맞으며 손을 흔들면서 너무나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오후 2시에 그들을 실은 버스는 떠났습니다. 그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여러 부서가 협력하고 화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귀중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떠나는 시간까지 홀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해주신 중헌의 성도님들께 너무나 어려운 봉사를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진 / 3부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좌) 예배 후 김성관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는 홀트 가정(우)